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 동국대와 금강대의 시선차

10월 23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는 세계적 석학인 타케무라 마키오 일본 동양대 총장의 특강이 열렸다.

유식학 대가라 불리는 타케무라 총장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의 초청으로 방한해 <성유식론>의 연기사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몇몇 교수와 불교문화연구원 소속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자리해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강연 후 첫 질문은 자료집 오역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플로어에 있던 일본통인 불교대 소속 한 교수가 통역자를 대신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타케무라 총장이 어떤 생각이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게다가 강연 전 예정됐던 타케무라 마키오 총장과 불교대 교수들과의 점심식사는 대다수 교수가 불참을 통보했고, 저녁 식사는 몇몇 관계자만이 타케무라 총장과 함께했다.

학자를 불러놓고 학술적 답변이 아닌 통역 문제로 시비가 걸리고, 외국에서 먼 길을 찾아온 손님 접대에 대한 기본매너까지 엉망인 행사였다.

이보다 앞서 13~15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독일 출신인 할트무트 부셔 박사를 초청해 '아뢰야식 개념의

기원에 대한 입장의 비판적 재검토'를 주제로 집중워크숍을 개최했다. 할트무트 박사는 3일간 세차례에 걸쳐 2~3시간씩 열린 강연과 토론을 통해 자신의 학설을 금강대 연구원을 비롯해 서울에서 금강대까지 찾아온 동국대 서울대 고려대 대학원생 등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금강대 성낙승 총장도 자리해 불교학 지원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석길암 연구교수는 "집중워크숍을 통해 학술대회나 특강에서는 얻을 수 없던 깊이 있는 대화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 연구교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형식적인) 국제학술회의를 최소화하고 매년 5~6회 이상 집중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번 타케무라 마키오 총장 특강과 할트무트 부셔 박사의 집중워크숍은 행사 운영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동국대와 금강대의 불교학을 대하는 시각의 차이가 아닐까?

건학 104주년을 맞는 동국대가 개교 10들을 갓 앞둔 금강대에 불교학 분야에서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세계화, 국제화의 방법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승가 수행 종풍 진작 큰역할

### 조계종 32대 집행부 막내려... 종단 내부 화합은 과제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퇴임과 함께 32대 집행부가 막을 내렸다.

지관 스님의 32대 집행부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첫 4년 임기를 채운 점에서 '원만히 회향한 것 자체로 종단안정 등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관 스님은 32대 선거 당시, 공약 사항으로 △종단 안정의 기틀 마련 △중앙과 교구의 조화로운 발전 △'나눔의 장'으로 존경받는 종단 구현 △한국불교 정보화·세계화의 4대 운영기조와 △수행종풍 진작 △교구본사 역량강화 등 10대 중책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중 '종지종풍 확립 및 수행종풍 진작' '문화포교 기반 구축' '대사회 활동 강화'는 눈에 띄게 진척된 점이다. 특히 '결계 및 포살'의 시행을 비롯해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 및 '통일가사'가 제정돼 승가 수행 체제 및 종풍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조계종조 도의조사 차례제를 매년 실시하고 흥분산 조계사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등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단의 정통성 확립과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다. 포교 기반 확대를 위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완공을 비롯해 전법회관(중앙신도회관), 템플스테이정보센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목동 국제선센터, 낙산사 북원사당 등 굵직한 불사도 원만 회향했다.

또 32대 집행부는 각 사회 현안에 불교계 목소리를 드높였다. 10·27 법난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며, 국립공원 내 사찰경내지와 관련한 통도사 결의대회, 종교연합 정국외 8·27법불교도대회를 주도하는 등 불교계 권익을 위해 정부에 끈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립과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 복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해외구호사업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2008년 발족된 교계 첫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국민 인식을 높이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동국대 신정아 사건' 등으로 표출됐 듯 종단 내부 갈등은 상반된 평가를 받게 한다. 지관 스님을 지지한 종단내 여권과 야권의 반목은 내부적으로 제도정비 등의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2대 임기 내 화두였던 '승려노후복지 제도 확립'과 '선거법 개정' 등 법령 및 제도정비는 각 계파간 이견으로 좌절 또는 연기됐다.

특히 '중앙 종풍의 지역교구 이양과 관리감독 강화'는 미흡했다는 평

가다. 각 본사들이 각종 비위 사실들로 인해 사회법에 의해 사법처리된 점은 각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중앙 사법기구의 사정권한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남북불교교류 또한 신계사 복원 불사 완공 이후 정치권의 경색구도의 영향으로 정체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용산참사 등 각 사안에 원칙을 잃은 대응도 '흠'으로 남는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 속에 조계종 총무원 32대 집행부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함께한 조계종의 4년>이란 제목의 성과자료집을 통해 다양한 정책집행을 자기 집행부에 당부했다. 32대 집행부는 성과자료집을 통해 △조계종 표준금강경 편찬 △결계 포살 시행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집행과정을 설명했다. △결계 포살의 지속 추진 △승가복지제도 마련 △해의특별교구 설치 △신도사 포교 거점 도량 확보 등 과제를 제시했다.

수많은 공과 속에 조계종은 제33대 집행부 체제를 맞게 됐다. 중앙종회 각 계파의 연대 속에 탄생한 새 집행부는 32대 집행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할 지 불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국민 계도 위해 더욱 정진” 당부

###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퇴임



지관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불교계 첫 4년 임기를 마친 공덕을 불자들에게 회향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0월 30일 퇴임을 끝으로 4년 동안의 소임을 마감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예장에서 개최된 스님의 마지막 일일장에서 원로의원 혜정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혜종 스님, 교육원장대행 법장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장 태원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32대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최병국 국회 정각회장, 박재완 청불회장, 종무원 등 관계자 350여 명이 동참했다.

지관 스님은 퇴임사를 통해 "40리 가는 차를 타고 가다 보니 내릴 때가 됐다. 팔을 쫓아도 팔이 것처럼 원래 오고 가는 것은 없듯 감회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관 스님은 "4년동안 동안 정부와 국민이 염려해주고, 안으로 전 종도들이 뜻을 모아줘 원만했다"며 "한국불교는 끝이 아니고 연

속이기 때문에 국민계도를 위해 더욱 정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퇴임식 직후 4층 총무원장실에서는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참석해 가운데 총무원장 인수인계식이 열렸다.

지관 스님은 자승 스님에게 총무원 업무 관련 서류와 사회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 등 산하 기관 자료를 인계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목동 국제선센터 건립 불사와 한국전통사상서간행 사업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자승 스님은 "새 소임 스님들과 함께 잘 처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절차 이후 지관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헌향하고 삼배를 올리며 한국불교 진흥을 거듭 기원했다. 지관 스님은 배웅을 위해 나온 총무원 전 종무원과 교역직 스님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환송 속에 총무원 청사를 나섰다. 노덕현 기자

## 포교역량 키우자...포교결집대회

### 조계종 포교원 1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서

전국 포교·신도단체의 자생적 포교역량강화를 시도하는 대규모 포교결집대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1월 1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1만 5000여 불자가 함께하는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한다.

'포교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포교원이 올 초부터 기획해 온 핵심 사업이다.

행사는 서울(법회) 공연과 LMB심어즈, 연합합창단, 뉴트리팝스오케

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만 불자 경전 독송회를 실시한다. 이는 백고좌, 만승법회, 염불결사 등의 역사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단체 신행문화의 수립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주요행사인 포교결집법회에 이어 포교역량 한마당에서는 2009년 포교대상 시상식과 포교·신행단체의 공연, 유명 불자 연예인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청소년들의 주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어린이 실사댄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울동,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울동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참가자들의 행사진행모습 및 행사장 전경을 찍은 디카, 폰카 사진 작품들을 공모하고 선정된 사진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금과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포교부장 계승 스님은 "제1회 포교결집대회는 각 산하단체의 1년 농사 결실이다. 결집대회를 위해서는 포교원 산하기관의 자체적 운영능력과 실질적인 힘이 필요하다"며 "세대, 계층, 직종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모든 신행·포교 단체가 정체성과 생명력을 가진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 ‘대중결계록’ 발간 조계종·위드쌍용 협약

조계종 제32대 집행부의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인 '결계 및 포살 시행'을 집대성한 <대중결계록>이 발간됐다.

'결계'와 '포살'은 2008년 3월 20일 종회 법안이 통과된 이후 당해 5월부터 전국 선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대중결계록은 각 교구를 비롯해, 종합학교와 해외선원 등의 대중결계과 5대 총림선원 등 각 선원의 수선안거 대중결계록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승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언론에 비공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지관)과 (주)위드쌍용(회장 명호근)은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보험 업무 지정협약을 체결했다.

보험 협약에 따라 위드쌍용은 조계종 총무원 소유 및 관리자산과 직할 사찰 관리자산에 대한 보험건설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교계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 등 중요불교문화재 99건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국정감사 이후 불교 자산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인해 삼보정재 보존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이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조 계 사

주 지 세 민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732-2115  
팩스 : 02-720-1391 http://www.jogyesa.org